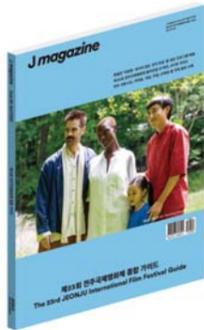


# 책으로 즐기는 '전주국제영화제'

J 매거진 등 특별한 출판물 6종 발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올해의 영화제를 집약적으로 소개하는 6종(국문 4종, 영문 2종)의 특별한 출판물을 발간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J 매거진》과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및 회고전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국문판/영문판, 《위대한 유산, 태형영화 1984-2004》 국문판/영문판, 《영화보다 낫선+》 색션의 연계 프로젝트 《보더리스 스토리텔러 - 무빙 이미지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8인의 예술가들》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영화를 기억하고 즐기는 또 다른 방식을 선사할 것이다.



J 매거진

**▲J 매거진**  
《J 매거진》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종합 가이드를 잡지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57개국 217편의 영화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포함 감독 인터뷰, 영화 리뷰, 특별전 해설 등 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번에는 개막작 《애프터 양 After Yang》의 코고나다(Kogonada) 감독, 폐막작 《풀타임 Full Time》의 에릭 그라벨(Eric GRAVEL) 감독, 《오미주》의 신수원 감독, 《여섯 개의 밤》 강길우 배우 등 다양한 영화인의 인터뷰가 담겼다. 저명한 프로그래머들과 영화 평론가들의 상영작 리뷰도 있어 작품 선정을 고민 중인 관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주 서점, 산책로, 카페, 상점 등 유용한 지역 정보도 다뤘다. 영화제 기간(2022년 4월 28일-5월 7일) 동안 전주 시내 서점과 카페에서 직접 구입 가능하다.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지난 25년간 이창동 감독이 추구해온 작품 세계를 한눈에 조망하고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으로, 국내외 영화평론가 9명의 개성 있는 작품론과 작가론, 이창동 감독의 최신 인터뷰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련한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 색션과 관련해 특별 기획되었으며, 이창동과 그의 영화를 주제로 한 책 중 감독 자신이 직접 참여한 첫 번째 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창동 감독의 팬들을 위하여 영문판도 제작되었다.

**▲위대한 유산, 태형영화 1984-2004**  
《위대한 유산, 태형영화 1984-2004》는 전주국제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이 공동기획한 태형영화사 자료집이자 이태원 태형영화사 전 대표의 추모집이다. 국문판과 영문판(Great Expectations: Taehung Pictures 1984-2004)이 각각 발간된다. 이 책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영화의 부흥기를 이끈 태형영화사의 빛나는 성취를 생생한 인터뷰와 기고문 및 올컬러 시각자료와 통계 등 다각도로 조명했다. 1984년 창립되어 현재까지도 존속하는 대표적인 영화제작사인 태형의 역사는 곧 한국영화의 역사라 할 정도로, 태형의 도전과 성취는 한국영화의 도전과 성취로 직결된다. 태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아재야재 바리야재》(1989), 《장군의 아들

》(1990), 《서편제》(1993), 《춘향전》(2000), 《취화선》(2002)과 같은 '명품 한국영화'를 만들어 낸 개성이며, '한국 관객 최초 100만 돌파'와 '한국국제영화제 본상 수상'이라는 눈부신 성취를 이룩해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이태원 전 대표에 대한 공로상을 수상할 계획이다.

**▲보더리스 스토리텔러 - 무빙 이미지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8인의 예술가들**  
《보더리스 스토리텔러 - 무빙 이미지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8인의 예술가들》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무빙 이미지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8인의 예술가를 인터뷰한 책이다. 영화제의 가장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색션 '영화보다 낫선+'의 일환으로 참여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감독들의 작업만을 소개하던 틀을 깨고 타분야의 작가들 중에서 영상을 매개로 작업하는 이들을 통해 미디어 컨버전스 시기 영화의 위치와 동시대 예술의 시대정신을 들여다본다. 이 책의 부제처럼 8인의 예술가, 고등어, 김영글, 김진아, 김희천, 무진형, 송주원, 오재형, 황수현은 미술, 문학, VR, 무용, 음악 등을 바탕으로 다른 매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빙 이미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도전해 온 혁신적인 예술가다. 이들의 작품은 모두 영화적 가치를 내포하면서도 이야기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분야에 대한 집요한 사유를 거친 작가들의 고유한 시선을 짐성하여 출판물에 담았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판물은 전국의 각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며, 전주국제영화제의 온라인 굿즈샵(<https://smarstore.naver.com/jonjiffgoods>)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판담당자(suekim33@jonjiffest.kr)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전주 영화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며, 국내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온피오피엔(ONFIEN)을 통해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협력

한국전통문화전당-신협중앙회-한국철도공사-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업무협약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28일 서울 어린이재단빌딩 11층 회의실에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와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 등과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기차여행과 전통문화 체험의 추억을 선사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KTX 기차를 타고, 전주에 소재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 한식, 한옥, 한지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협중앙회는 협력사업 운영지원비 및 홍보 활성화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지원 및 운송에 관한 제반 업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협력사업 대상자 선정 및 인력 운용 등이 있다.

특히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기차여행이 시작되는 5월 5일 어린이날 첫 방문에는 어린이와 인솔 교사 등 40여 명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시루방)에서 비빔밥과 떡갈비를 직접 조리하고 시식하는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전당의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한지등 만들기, 한지뜨기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재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100년 전 소파 박정환 선생의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육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신협의 첫 특화지역인 전주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전통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어린이들의 전통문화체험에 KTX가 함께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으로 선조들의 훌륭한 전통문화와 고속철도의 첨단을 만끽하며 우리나라의 보배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원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이런 좋은 기회를 해준 신협, 어린이재단, 철도공사측에 감사하다"며 "전주를 찾은 어린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전통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장은성 기자

# 고창 국악인들, 주말 다채로운 '판소리 버스킹'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 고창군이 주말 판소리 버스킹을 마련해 군민과 고창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 판소리 버스킹은 신재효 고택과 동리정사에서 고창 국악인들이 다채롭게 꾸미는 공연으로 열린다.

여름철 무더위 기간을 제외하고 주말 오후 2시에 판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에서 활동하는 (사)동리문화사업회, (사)한국판소리보존회고창지부, (사)한국국악협회고창지부, 국악예술단 고창,

고창국악단 가인, 진채선 선양회가 주관한다. 버스킹은 판소리, 창극, 민요, 퓨전 판소리 공연과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져 고창을 찾은 관광객에게 더 없이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 고창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단체·동호회·학교 등은 고창판소리박물관(063-560-8061)에 사전 예약하면 판소리 해설과 판소리 한 대목 연창, 판소리 따라부르기 등 다양한 맞춤형 판소리 공연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생활 속 문화예술 작은 강좌 공모

순창군이 생활 주변 어디서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생활 속 문화예술 작은 강좌'를 운영할 시설 10개소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문화예술 강좌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강사는 시설운영자가 순창 문화예술인 중에

서 우선 선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강사를 선정한다. 강좌는 회당 운영비 5만원, 강사료 15만원을 지원한다.

심사기준은 운영 공간, 접근성, 강좌 운영용품 보유 여부, 사업에 대한 이해,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신청은 5월 4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smkt74@korea.kr)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3-650-1625)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완주군, '인문미술기행 특강' 참여자 선착순 모집

완주군이 '완주군 화요아카데미'의 첫 시작으로 '인문미술기행 특강'을 개최한다.

28일 완주군은 '미술과 삶, 미술과 세상'을 주제로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서면 쿠파워하우스 도서관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는 임옥상, 김철규, 송만규 화가가 나선다.

우선 임옥상 화가는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로 대표작은 청와대 세종실 벽면 전시된 《광장을 장식하는 촛불혁명 속에서 있다》가 있다. 이번 강연 주제는 '임옥상의 대지에서 춤추다'다

김철규 화가는 전북미술대전 대상과 전국온고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의 경력이 있다. 수년

째 '인체종경'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양화가이다. 강연의 주제는 '조형적으로 풀어낸 인체를 통해 나타난 삶의 이야기'다.

송만규 화가는 강을 매개로 한 그림들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화가다. 아름다운 섬진강과 만경강을 소재로 수묵화로 담아낸 지역 대표 작가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강에 대하여'다.

성인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신청접수는 5월 16일까지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